

## 始祖 太師公과 瓶山大捷

시조

태사공

병산대첩

태사공은 대보공(大輔公) 김갈지(金鵬智)의 후손으로 본성은 김형(金幸)이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성명이 권행(權行)으로 기록되어 나온다. 이것은 사관의 착오로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전(世傳)의 기록이나 모든 문적에는 휘가 형(幸)으로 나온다.

태사공이 덕업을 쌓고 공훈을 세워 사성(賜姓)과 작위(爵位)를 받은 일은 사서(史書) 각 집안의 문헌에 수없이 많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동사강목(東史綱目)>의 기록이다. 동사강목은 조선 영조(英祖) 때 안정복(安鼎福)이 아동의 교서(敎書)로 지은 역사 책으로 기자(箕子)에서부터 고려말까지 사적을 송(宋)나라 주자(朱熹)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 내용은 “경순왕(敬順王) 3년 기축(己丑 929년) 후당(後唐) 천성(天成-명종 2년) 4년 12월 후백제 견훤이 고려·신라의 고창군(古昌郡-안동)을 포위하니 고려 임금 건(王建)이 스스로 장수가 되어 와 구원하였다. 경순왕 4년에 고려 임금 건이 견훤을 고창에서 대파하니 동방(東方)의 주군(州郡)이 모두 고려에 항복하였다.”

병술(丙戌)일에 고려왕의 군대가 고을의 북쪽 병산(瓶山-안동시 와룡면 서지리)에 이르렀는데 흰(萱)의 군대는 석산(石山)에 있어서 서로 거리가 5백보가 되자 드디어 집전하였다. 저를 때까지 격전을 벌였는데 유검필(虞檢弼)이 경병(輕兵)을 이끌고 저수봉(猪首峰)에서 분격하니 백제의 군사가 크게 무너져 흰(萱)이 몸을 빠져 달아나는 지라 백제의 시랑(侍郎) 김악(金岳)을 사로잡고 백제군의 죽은 자가 8천여 명이었다. 왕이 임성하여 김필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승첩(勝捷)은 경(卿)의 공이다” 하였다.

견훤(甄萱)은 장수를 보내 순주(淳州)를 쳐 침략하고 인호(人戶)를 약탈해 갔다. 고려왕이 곧 순주로 행차하여 성을 수복하고 주를 격하하여 하지현(下枝縣)을 삼고 원봉(元奉-성주)을 잡았는데 백제에 항복했으나 전에 공이 있으므로 용서하였다.

고창성주 김선평(金宣平)을 대공(大匡-문무관 1품)으로 삼고 김행(金幸)과 장길(張吉-장정필)을 대상(大相)으로 삼았으며 군을 승격하여 안동부(安東府)로 하였다. 이에 연안(永安-풍산), 하곡(河谷-임하면), 직명(直明-일직면), 송생(松生-청송), 등 30 여 고을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 김행(金幸)에게 권(權)씨로 사성(賜姓)

김행(金幸)이란 사람은 나라의 종성(宗姓-왕실의 성)인데 견훤이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말을 듣고 무리와 모의하기를 “흰(萱)은 의리상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으니 어찌 왕공(왕권)에게 귀부하여 우리의 수치를 설해(雪解)치 않으리오”하고 드디어 고려에 항복하니 고려왕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행(幸)은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權道)에 통달하였다.” 하고 권(權)씨로 성을 하사하였다.

여기에 상세히 기록한 사서(史書)는 여사제강(麗史提綱)이다. 여사제강은 동사강목보다 앞선 조선 숙종때 학자 시남(卍南) 유계(俞葵)가 고려사를 저본으로 하여 주자(朱子)의 통감강목의 체계에 따라 지은 역사서이며 다음과 같다.

고려왕이 고창을 구하고자 예안진(禮安鎭)에 이르러 여러 장수와 의논하여 말하기를 “싸워서 만약 이기지 못하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니 대상(大相)공훤(公萱)과 홍유(洪維)가 말하

기를 “혹시라도 이롭지 못하게 된다 면 죽령(竹嶺)길로 돌아 갈 수 없으니 마땅히 사잇길을 뒤편하여야 합니다.”하였다.

유검필(虞檢弼)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병(兵)이란 흉기(凶器)이고 싸움은 위태로운 일이라 하였으니 죽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고 살고자 하는 기운이 없는 뒤에야 승리를 결하는 것이거늘 지금 적 앞에 임하여 싸우지 않고 먼저 북으로 꺾일 것을 우려하니 어찌서입니까? 만약 고창을 구원치 못한다면 3천여의 무리가 적과 더불어 두손을 모으고 맞아들일 터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신(臣)은 진군하여 급히 칠 것을 원합니다.” 하니 고려왕이 좃았다.

병술(丙戌)일에 진군하여 고창의 병산(瓶山)에 주차(駐次)하니 흰(萱)의 군대가 석산(石山)에 있어 상거가 5백보쯤이었다. 왕이 드디어 흰과 싸우게 되어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 유검필(虞檢弼)이 경병(輕兵)을 이끌고 저수봉(猪首峰)에서 분격하니 백제의 군사가 크게 무너져 흰(萱)이 몸을 빠져 달아나는 지라 백제의 시랑(侍郎) 김악(金岳)을 사로잡고 백제군의 죽은 자가 8천여 명이었다. 왕이 임성하여 김필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승첩(勝捷)은 경(卿)의 공이다” 하고 고창성주 김선평(金宣平)을 대공(大匡-문무관 1품)으로 삼고 김행(金幸)과 장길(張吉-장정필)을 대상(大相)으로 삼았다. 행(幸)은 그 본성이 김(金)인데 권도(權道)에 통달하였다 하여 권(權)씨로 사성(賜姓)하였다.

위 기록으로 보면 안동지역 일대에서 그 중심인 고창성(古昌城)은 신라의 지배와 영향 하에 있었으나 바로 인접한 예안은 고려의 영향 하에 진수를 두고 있으며 풍산에 순주를 설치하여 장수 원봉을 성주로 두어 지배하고 있는 형세였다. 신라말 후삼국의 균용(群雄)이 활거(衡據)하던 극심한 혼란기에는 국경이 없는 형편이었다. 후백제가 광주(光州)와 전주(全州)의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났는데 광주에 인접한 나주(羅州) 영산강(榮山江) 지역의 40여 고을이 고려의 지배 하에 있었고 신라 서울 경주(慶州)에서 멀지 않은 부산(釜山)의 절영도(絶影島-영도)는 후백제가 지배하였다. 이렇게 3국이 각축을 벌이는 충청도와 경상도 서북부 지역의 여러 성읍(城邑)은 수시로 그 주인이 바뀌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가 3분되어 신라, 후백제, 고려가 정립(鼎立)하여 각기 자국주도의 통일을 꾀하면서 호시탐탐(虎視眈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 태사공묘소(太師公墓所)와 능동제사(陵洞齋舍)

태사공실기와 능동실기 묘도편이나 모재 김안국(金安國)의 묘재장원기에 태사공 묘소(太師公墓所)는 전등산에서 내려와 조화곡(造火谷) 자좌오향(子坐午向)이며 옥녀단좌형(玉女端坐形)에 금차적지혈(金叉積地穴)이라 하였으며 마을 이름은 금계(金溪)이니 속칭 검제 또는 능동(陵洞)이라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의 안동부편 충묘조에는 “김선평의 묘는 부의 서쪽 고대장리에 있고 장정길의 묘는 성곡리에, 권행의 묘는 본파곡리(本破谷里)에 있다”고 하였고, 안동읍지에는 “태사 권행의 묘는 본파곡리에 있고 장사 후 능동(陵洞)이라 하였으며” “부사 권소(權紹)가 권심행(權審行) 권몽두(權夢斗), 외손 유공계(柳公季)로



하여금 사초케 하고 한식에 제함을 올렸다.”고 하였다.

태사공의 묘소는 500여년 실전되었다가 1470년 경 추밀공의 7세손 평창군사(平昌郡事) 응(雍)이 충주에서 이조정랑 배소(裴素)의 딸을 맞아 풍산현의 하회촌에 거주하면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다가 시조님 묘소를 알아내고 지사(地師)와 함께 두루 답사한 끝에 지석(誌石)을 찾았으므로 봉분을 쌓고 입석을 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졸하니 임종 시 계하에 장사해 줄 것을 명하였다. 부인 배씨가 먼저 졸하여 계하에 매장하고 그 아래에 평창공을 매장하고 공의 아들 유(裕)와 자(祚)는 단갈(短鵪)을 세우니 비문은 유의 사위 이종준(李宗準)이 지었다.

그후 유와 작은 평창으로 돌아가고 사위인 호군 증 사복시정 유소(柳韶)가 남쪽에 매장되고 이로부터 유씨가 말아 수호(世守)하게 되었다. 평창공 응은 정간공 회(懷)의 장자 화(和)의 장남이다. 공은 목은 이색의 외척 이계린의 추천으로 한산의 지군사로 부임하였는데 역대 군수 중 명군이라 하였으며 평창군사를 끝으로 충주에 우거하였다. 평창공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신숙문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풍산인 유소에게 출가하였으니 평창공이 딸을 공의 처향인 하회의 유소에게 보낸 것이다. 평창공의 아들 이후 4,5대만에 절사되니 외손 유씨가 시조 묘역을 수호하게 되었다.

이후 권문 후손이 시조 묘역을 수호하지 않아 능동지역의 많은 임야(262정보)를 조선조에 수차례 송사 끝에 비변사에서 풍산류씨와 안동권씨 공유토록하게 되었다.

능동제사(陵洞齋舍) 추원루(追遠樓)에는 8개의 주련(柱聯-기둥에 써 거는 절구)이 있는데 이는 추밀공과 양촌계 32세손으로서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栗) 도원수의 10대손인 경농(耕農) 중현(重顯-在衡)이 지은 것이며 다음과 같다.

초목정제현인소과(草木精采賢人所過: 초목의 광채가 정수하니 현인이 지나간 자취이고) 산수영회군지유장(山水縈迴君子收藏: 산과 물이 굽고 에두름은 군자를 갈무리 곳이다) 권외경애장유지(權外敬愛景仰有地: 저 언덕을 돌봄이여 크게 숭앙할 지리이고) 등사루아광감증회(登臺樓也曠感增懷: 등사루아광감증회(登臺樓也曠感增懷) 이 누각에 오르면 너그르도 떠나면 감회 더하다) 천추향화기사우연(千秋香火是偶然: 천추의 향화가 이 어찌 우연한 일리리오) 만대영화고기야(萬代榮華固其宜也: 만대의 영화에 실로 그 마땅함이 있네) 서기배금대상괴위(庶幾拜金帶象龜碑: 뛰어난게 현결한 기상을 금대를 배수할 가대에 차고) 방불문옥소음청화(髣髴聞玉簫音清和: 옥통소 울림을 듣는 듯 그 소리 맑고 화창하구나) (태사공실기에서)

## 유엔스텝재단 도영심이사장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6월 13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과 현지정부관계자들과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169번째 ‘작은도서관’ 개관식에서 교육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며 “에티오피아 미래의 주역들이 독서를 통해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에 있는 스텝 재단(이사장 도영심-권정달 안동권씨대중문화재단 부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저개발국의 초등학교 위주로 도서관을 조성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에티오피아에 개관한 4개의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에티오피아에만 35개, 20개 저개발국에 총 169개의 도서관을 개관해 주어 아프리카 빈곤국의 어린이들에게 문맹퇴치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 도영심 스텝재단 이사장 “韓, 새년개발목표 달성 주도해야”

도영심 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 이사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3차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월 2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폴 가가메 르완다 대통령,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공동 주재하는 “2015년 UN 새년개발목표(MDGs)” 창도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도 이사장은 이날 “가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교육을 통한 세계의 빈곤퇴치에 앞장서는 국가로서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UN 새년개발목표는 2000년 9월 뉴욕의 UN밀레니엄 회담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개발 주체들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서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을 채택했다.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을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해로 삼을 것”을 역설했다.



△사진은 뒷줄 좌로부터 푸아디부라힘 에티오피아 교육부차관, 윤정관, 도영심 스텝재단이사장, 계부르케부레실라세 에티오피아 연방의회 의원이다.



△사진은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영심이사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도이사장은 오클라호마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력은 유엔새년개발목표 창도위원회 위원, 2001 한 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1988-1992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자료제공: 유엔 스텝재단, 편집: 권경석 편집인)

## 임진왜란과 권율도원수

제423주년 이치대첩제에 즈음하여



최근 지상과 TV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역사대하드라마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KBS 1 “장비록”에서는 선조와 유성룡이 등장하고 있고, MBC “화정”에서는 광해군이 열연하고 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수모를 당하였고, 현재도 미묘한 한일관계인 상황에서 공중파로 내보내는 “임진왜란”은 정치인들에게 “과거와 같이 당파싸움으로 외침의 위협을 외면하고 대비치 않은 우매한 짓을 불식”하라는 국민적 염원의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3대첩은 후자는 한산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이라 하지만 진주성싸움은 패한 전투이므로 대첩에 들어갈 수 없고, 육전에서 전략적 승전을 거둔 권율장군의 이치대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1. 이치대첩: 왜군이 조선반도를 쳐들어오자 선조대왕은 권율을 광주목사에 임명하고 호남지역을 사수토록 어명을 내렸다. 권율장군은 정충신을 발탁하여 진

안의 응치에서 왜적을 패퇴시켰으며, 1천명의 의병과 관병을 합하여 1,500명을 이끌고, 고비야가와 다카카케(小川川隆景)가 이끄는 왜군이 침략할 지점인 배티재(금산과 전주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의 양편에 진지를 구축하고 권율장군은 군사편제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독려하였으며, 좁고 험한 고갯길 양편에 진지를 구축하고 목책과 녹채 (대나무를 세워 사슴 뿔처럼 만든 울)과 여장 (성위에 낮게 쌓은 탑) 등을 설치하고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이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결연하게 명령하였다.

이치대첩은 황진장군을 선봉장으로 아침에 전투가 시작되어 성채 안에 들어오기까지 치열한 전투와 육박전을 감행하여 오후 3시경에 적을 물리쳤다. 적은 5시에 재공격을 하였으나 다시 격퇴하였고, 권율장군의 명령에 따라 미리 영정곡에 기병장 권승경부대를 배속시켰던 우리 병사에 의해 패주하는 왜군이 거의 전멸되므로써 1,500명의 병사로 1만여 명의 왜군 주력부대를 무찔렀다. 호남의 곡창지대를 사수하므로써 왜군이 식량을 주지 않았고, 이순신장군의 전라좌수영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섬멸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으니 이치대첩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승인 것이다.

2015년 8월2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이치대첩지에서 제423주년 이치대첩제를 엄숙히 봉행할 예정이다. 2. 행주대첩: 1593년 3월14일 전라도순찰사 권율장군은 한양을 수복하기 위하여 2,300명의 조선군과 민간인이 왜군 3만명을 물리친 자랑스런 대첩이다. 오전 6시에 시작한 전투는 총 7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왜군과의 총력전이었으며,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왜군은 1만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이 때에 부녀자들은 긴치마를 짧게 만들어 돌을 날라다 주어 전투를 지원하였다. 여기에서 “행주치마”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행주대첩의 전공으로 권율장군은 3군사령관인 도원수가 되었다. (권경일기자)

## 安東權氏宗報

총지: 송조이념학림·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용

발행장소: 안동권씨대중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시재)

E-mail: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중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재, 권순세, 권오은
기자	권영진, 권희세, 권경일, 권범준
자문위원	권중환, 권인호, 권영환, 권영성, 권오성, 권대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종보사(개인독자)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우체국: 종보사
(안동권씨대중원) 농 협 076-02-247343	010108-01-000369

##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른 안내문

새 우편번호가 2015년 8월1일부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새 우편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 착오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대중원은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정확히 통보하되 전화상으로는 발음이 불분명하니 가급적 팩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새 우편번호 구성**  
앞의 2자리: 특별, 광역시, 도 / 가운데: 시, 군, 구
- 2. 새 우편번호 찾는 요령**  
o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새우편번호안내  
o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o 네이버 다음 등 주요사이트- 도로명주소찾기
- 3. 연락 및 강조사항**  
o 우편물(종보 등)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 변경시 명확히 기재하여 팩스로 대중원에 통보 요망  
연락처: 팩스: 02-2695-2485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2길11 우)02585  
전 화: 02-2695-2483/4(담당: 권범준 홍보부장)